

#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유형과 함의

## Types and Implications of Tumuli in the Eastern Middle Nakdong River Basin

박 현 정  
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I. 머리말

### II.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

### III. 대상 봉토분의 검토

### IV. 축조기법의 유형과 함의

### V. 맺음말

#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낙동강 중류역 이동지역에 위치한 6개소 고분군의 봉토분을 대상으로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을 통해 시공간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봉토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축조형태의 조합을 통한 유형분류는 그 설정이 무의미하였는데 이는 당시 다양한 축조기술이 담긴 문화적 웅덩이(culture pool)에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축조기술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성토단위 구성을 통한 유형분류는 3개의 유형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가 복개와 밀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가 복개와 밀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변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상은 친신라적 세력의 봉토분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발달이라기보다 계통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자는 재지적 성토공정이고, 후자는 경주 적석목곽분의 성토공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토목기술은 도제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릴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큰 폭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성토단위의 구성으로 살펴본 유형의 변화를 성토기술의 발달로 보기는 어렵지만 친신라적인 고분군은 5세기 중엽부터 적석목곽분과 유사한 성토층의 구성을 보이고, 다른 고분군의 경우는 고총 종말기에 적석목곽분과 유사한 성토층의 구성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성토공정의 변화 현상은 신라의 중앙집권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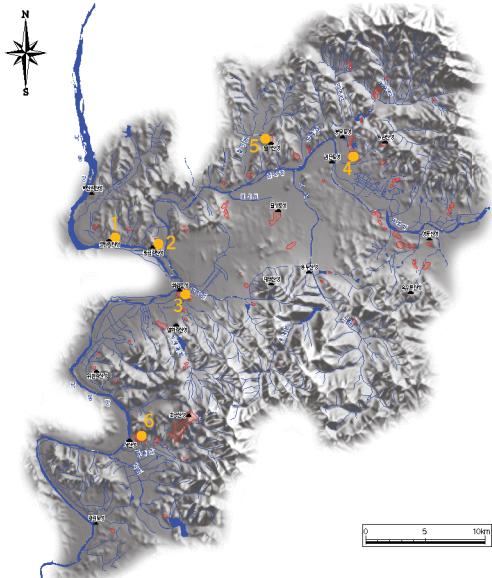
**주제어 :**낙동강 중류역, 신라 봉토분, 축조기법의 유형, 성토단위

# I . 머리말

삼국시대 봉토분의 축조를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의 동원과 자재의 확보 그리고 당대의 첨단 토목기술이 기초되어야만 한다. 봉토분은 권력 과시의 기념물이자 당대 기술의 농축물로서 이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과거의 일면을 검토할 수 있다.

봉토분의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매장주체부와 유물의 수거에 집중을 하여 봉분자체에 대한 연구는 등한시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굴기술의 발달과 자료의 집적은 봉분자체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봉분자체에 관한 연구, 즉 봉토분의 축조와 관련된 연구는 조영현(1993, 2001, 2002a)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봉분 성토과정에 대한 고찰과 축조기법의 연구(井上主稅 2003; 박미정 2006; 조영현 2011; 류재극 2012; 신동조 외 2013; 조성원 2013), 기존 발굴조사 결과물의 미비점 검토와 조사방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박미정 2006; 홍보식 2013, 2016, 2018)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봉토분의 축조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분석도 행하여졌는데 대구 불로동고분군 91호분과 93호분의 검토를 통한 시간적 변화 연구(박미정 2009), 신라 적석목곽분과 가야 봉토분 축조기술의 상사점과 상이점에 관한 공간적 연구(최경규 2023), 매장주체부 위치와 봉토 구조의 유형분류를 통한 시간적·공간적 연구(김강남 201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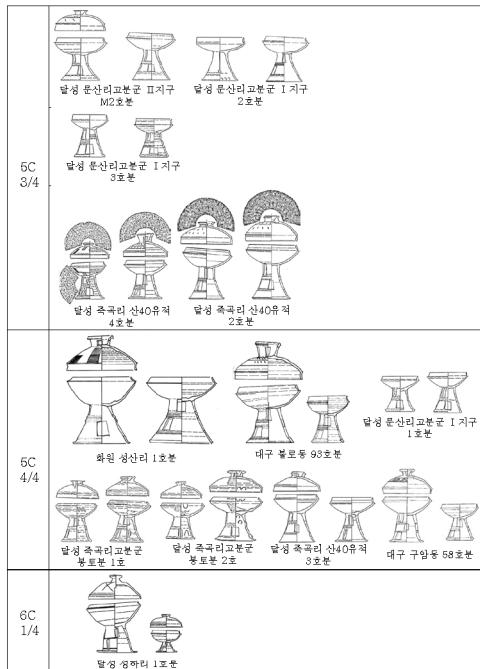
다만 현재까지 봉토분의 축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단일 봉토분의 검토 내지는 동일 고분군 내에서의 비교 혹은 정치권역별 확인된 축조기술의 나열에 그쳤으며,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로 시·공간적 연구가 된 경우에도 그 유형 자체는 무의미하였다.



[도면 1] 대구의 고분군 분포와 검토 봉토분의 위치

- (1. 달성 문산리고분군, 2. 달성 죽곡리고분군, 3. 회원 성산리고분군,  
4. 대구 불로동고분군, 5. 대구 구암동고분군, 6. 달성 성하리고분군)

이 논문은 신라 지방의 봉토분이 각 지방의 관계망 속에 형성되었다는 관점(김용성 2014)을 바탕에 두고 봉토분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를 통해 시공간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논문의 공간적 연구범위는 낙동강 중류 이동으로 군위가 편입되기 이전의 대구 광역시 권역(도면 1)에 해당된다. 비록 한정된 범위임에도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발굴조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신라지방고총 영조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발굴조사된 사례가 한정되기 때문에 검토된 봉토분의 축조시기 역시 조금 더 한정된다. 편년의 기준은 기존의 연구(김용성 2011; 정창희 2004)와 최근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도면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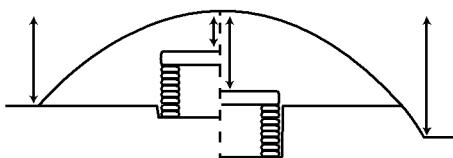
[도면 2] 검토 봉토분 편년(축척부동)

## Ⅱ.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

### 1. 축조형태에 따른 유형 설정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 속성은 대개 독립적이다. 유물이든 유구든 완성된 객체의 각 고유 속성이 분류되고 조합되어 형식 혹은 유형이 설정된다. 하지만 봉토분의 축조과정은 연속적이며 계기적이다. 축조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앞선 공정의 영향을 받아 적용되는 축조기술이 선택되고 그에 따른 축조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봉토분에서 드러나는 각 축조형태를 그 속성으로 하여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묘역선정은 봉토분의 성토에서 가장 선행되며 인공적 구조물의 성토는 해당 입지에 따라 향후 성토기술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에 입지를 능선부와 사면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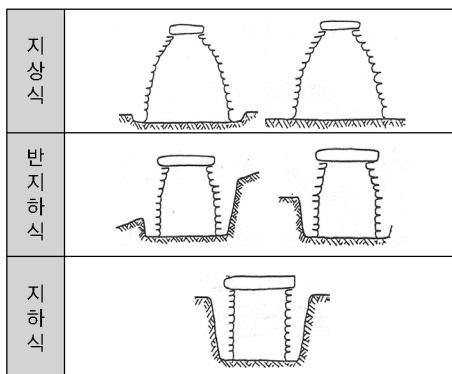
[도면 3] 매장주체부 수직위치 및 대상기법 적용여부에 따른 성토량과 높이 차이

다음 공정인 정지는 그 형태에 따라 삭토, 삭토치환1(정지층이 두껍게 구축<sup>1)</sup>되고 정지층이 다시 굴착되어 묘광이 마련된 경우), 삭토치환2(점성이 높은 점토를 이용해 달구질 등을 하여 원지반에 벼금가거나 그보다 더 단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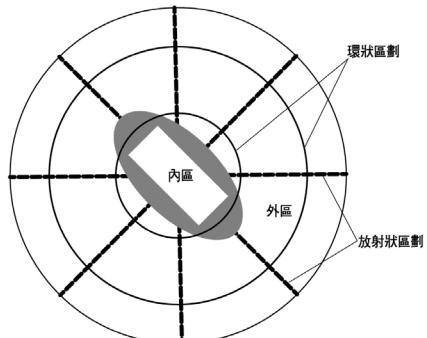
정지층이 조성된 경우)로 분류하였다.

주체부의 수직적 위치는 차후 공정에서의 성토량과 직결(도면 3)되기 때문에 봉토분의 규모 혹은 선 공정의 형태와 관련된다. 이 논문에서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는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분류하였다(도면 4).

성토과정에서 내구(도면 5)를 이루는 주체부와 봉분 가장자리의 비고차(比高差)가 크다면 이후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복개와 밀봉 이전에 봉분 범위의 가장자리에 별도 공정을 거친 성토층을 기반성토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반성토층의 조성은 주체부의 수직적 위치와 연관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형태적 속성에 포함시키고 기반성토층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도면 4] 매장주체부 수직위치(조영현 2002a 수정)



[도면 5] 구획성토의 봉토분의 평면용어(박현정 2017)

호석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시점에 따라 그 축조시점이 달라진다. 즉 호석의 축조는 기반성토층의 유·무에 따라 그 축조시점이

1) 정지층이 두껍게 구축되었다는 기준은 매장주체부 1/3이상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달라지고 여기에 더해 봉분의 완성 단계에 가장자리를 절토하고 호석이 축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호석의 축조시점을 봉분완성단계, 봉토층단계, 기반성토층단계로 분류하였다.

봉분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로 형성된 토제는 외구를 형성하는데 이는 봉분 중앙부 내구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유·무를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대상기법<sup>2)</sup>(도면 3)을 그 적용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상 봉토분의 축조공정을 묘역선정, 정지, 매장주체부 축조, 성토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공정에서 나타나는 축조형태를 속성으로 하여 그 조합을 통해 유형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축조공정별 축조형태

구분		축조형태		
축조공정	묘역선정	능선부		사면부
	정지	삭토	삭토치환1	삭토치환2
	매장주체부 축조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
	성토	기반성토층 조성	유	무
		호석축조 시점	봉분 완성	봉토층
		제상성토 적용	유	무
		대상기법 적용	유	무

## 2. 성토단위에 따른 유형 설정

봉토분은 흙이나 돌 등의 작은 분체물이 재료로 이용되어져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성토된 결과물이다. 봉토분의 성토방식, 즉 단위성토의 공정에 대한 기준의 연구(조영현 2002a: 15~18; 한옥민 2016: 24~25)에서 성토방식의 유형분류는 단위 성토층의 수평상 작업순서와 성토된 평단면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바 있다. 다만 공정과 기술이 혼용되어 유형분류의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였고 분류된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도출 역시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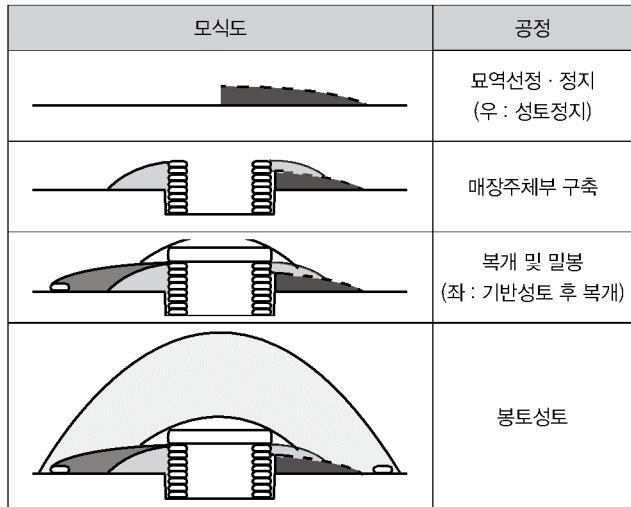
2) 대상기법이란 봉분이 입지하는 경사면 아래쪽 일부가 삭토되어 능선의 경사면보다 더 가파르게 만들므로써 원지형은 반침대와 같은 형상을 띠기 때문에 실제 봉분의 성토량보다 봉분이 더 높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48호분(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2022)으로 성토된 높이는 고분 전체 높이의 1/2이 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성토단위를 각 성토공정에 따라 정지층, 매장주체부 구축층, 기반성토층, 봉토층으로 구분(도면 6)하여 그 구성은 통한 유형을 검토할 것이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지층은 성토공정상의 첫 번째 성토단위이다. 묘역의 정지 공정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토목기술은 치환공법(대한토목학회 1996: 739)<sup>3)</sup>으로 구지표 혹은 연약지반의 삭토와 치환이다. 고층고분 빌굴조사보고서에서 구지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홍보식 2013: 60~61) 역시 이에 근거한다. 교란된 구지표에 대한 치환공정 없이 봉토분이 축조된다면 암밀현상에 이은 부등침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지표나 연약지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 결국 묘역의 정지층은 드러난 단단한 원지반면이 그대로 이용<sup>4)</sup>되거나 점토가 이용되어 기반이 다져진 형태로 나타난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가 반지하식 혹은 지상식일 경우 묘광 굴착시의 반출토가 이용된 제상성토층 및 벽석 이면의 구축층이 포함되어 묘광 상위에서 매장주체부가 조성되기 위해 성토된 층을 지칭한다.

기반성토층은 반지하식 이상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될 시 복개와 밀봉 이전에 매장주체부 구축층과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성토되어 수평면을 형성하는 층에 해당된다.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토층은 수직적으로는 같은 높이이며, 평면적으로는 봉분 내 내구(內區 매장주체부 구축층)와 외구(外區 기반성토층)로 구분된다(도면 5).



[도면 6] 봉토분 축조 모식도와 성토단위

(■ : 정지층, ■ : 매장주체부 구축층, ■ : 기반성토층, ■ : 봉토층)

3) 치환공법(置換工法, replacement method)이란 연약지반 및 동상의 염려가 있는 지반의 지지력 및 내구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재래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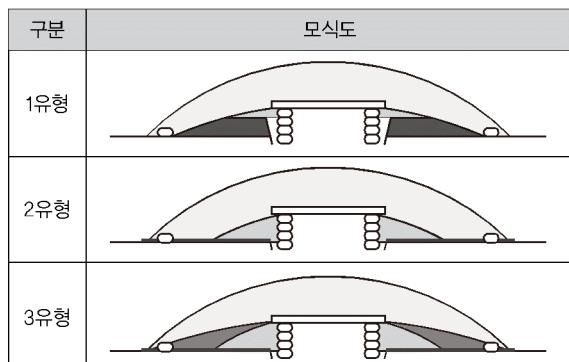
4) 정지층이 성토층 내의 분류라는 점에서 원지반의 삭토 자체는 성토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정지공정이라는 큰 틀에서 정지층의 한 종류로 정의되었다.

이상의 성토공정까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최경규 2023: 48)에서 하부봉토부로 표현된 바 있다.

봉토층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후 개석이나 천장석 상위에서 성토된 층이다. 봉토 아래쪽의 성토층이 봉분의 수평적 범위를 결정짓는 층이라면 봉토층은 봉분의 가시성에 목적을 두고 봉분의 수직적 규모를 결정짓는 층이라 할 수 있다.

봉토분의 성토는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완성되며 앞에서 언급되었듯 각 성토공정을 통한 성토층은 정지층, 매장주체부 구축층, 기반성토층, 봉토층으로 구분된다. 다만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 봉토분 가장자리의 성토는 봉토분마다 공정단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 성토단위의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봉토분의 가장자리 성토에 대한 공정단계 및 성토단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검토하고자 한다.

1유형은 묘역의 가장자리까지 성토정지가 된 후 매장주체부가 구축되고 복개와 밀봉 후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 2유형은 묘역의 정지 후 매장주체부가 구축되고 복개 및 밀봉 후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 3유형은 묘역의 정지와 매장주체부의 구축 이후 봉분의 가장자리가 매장주체부 높이에 맞춰 성토되고 복개와 밀봉 그리고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도면 7).



[도면 7] 성토단위 구성에 따른 유형의 모식도  
(■ : 정지층, ■ : 매장주체부 구축층, ■ : 기반성토층, ■ : 봉토층)

### III. 대상 봉토분의 검토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6개소 고분군에서 검토된 봉토분은 다음과 같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에서는 유존하고 있던 총 6기의 봉토분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그 중 봉분의 유존상태가 좋은 문산Ⅰ지구 1호분, 2호분, 3호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a · b), 문산Ⅱ지구 M2호분(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등 총 4기가 검토되었다. 달성

죽곡리고분군은 달성 죽곡리고분군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Ⅱ로 구분되는데, 달성 죽곡리고분군Ⅰ에서는 1기의 봉토분이 조사된 바 있고, 달성 죽곡리고분군Ⅱ에서는 총 6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그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Ⅰ의 발굴 봉토분은 봉분 조사내용이 소략하기 때문에 달성 죽곡리고분군 유적의 봉토분 1호와 2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달성 죽곡리 산40유적의 2호분, 3호분, 4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등 총 5기가 검토되었다. 화원 성산리 고분군에서 봉토분이 조사된 사례는 화원 성산리 1호분(경북대학교박물관 2003)이 유일하다. 대구 불로동고분군에서는 1938년 현 18호분과 22호분이 발굴되었고, 1964년 갑·을호분이 조사되었으며, 2002년 대구 불로동 91호분과 93호분이 조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근래 발굴된 봉토분 중 소형분이 증축되어 이루어진 대구 불로동 91호분은 제외되었고, 대구 불로동 93호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c)만이 검토되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에서는 1·5·56·58·304호분이 조사되었는데, 1호분은 소형분이 증축된 경우이고, 5호분과 304호분은 아직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으며, 56호분은 봉분 조사내용이 소략하기 때문에 대구 구암동 58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22b)만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달성 성하리고분군에서는 달성 성하리 1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5)이 검토되었다.

## 1. 축조형태 조합의 유형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토분은 축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정지의 형태, 매장주체부의 수직위치, 기반성토층의 조성유무, 호석의 축조시점, 제상성토의 적용여부, 대상기법의 적용여부 등의 형태적 속성은 유물의 그것과는 달리 유구, 즉 봉토분의 축조과정상의 순서를 반영하여 계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각 봉토분의 축조과정상에 드러나는 축조형태는 다음의 [표 2]로 확인되며, 이 논문의 편년 기준에 맞춰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축조형태의 조합을 통한 유형설정은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검토된 13기의 봉토분 중 완전히 같은 형태로 축조되는 예도 없다. 즉 봉토분의 축조에 있어 묘택 선정과 매장주체부의 축조 그리고 성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조형태는 축조기법의 유형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표 2] 낙동강 종류유역 봉토분의 축조방식

유구	축조형태	입지	정지	주체부 수직위치			기반성토	호석축조	제상성토	대상기법
문산 I 지구 1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무	무	
문산 I 지구 2호		사면	삭토치환1	반지하	무		봉토	무	무	
문산 I 지구 3호		능선	삭토치환1	반지하	무		봉분완성	무	무	
문산 II 지구 M2호		사면	삭토치환1	지하+반지하	무		봉분완성	무	무	
죽곡리 봉토분 1호		사면	삭토치환1	반지하	유		기반성토	무	무	
죽곡리 봉토분 2호		사면	삭토치환2	반지하	유		기반성토	무	무	
죽곡리 산40 2호		사면	삭토	지상	유		기반성토	무	유	
죽곡리 산40 3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유	유	
죽곡리 산40 4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유	무	
성산리 1호		능선	삭토치환2	반지하	무		봉토	유	무	
불로동 93호		능선	삭토	반지하	무		봉토	유	유	
구암동 58호		사면	?	지상?	유		기반성토	유	무	
성하리 1호		능선	삭토치환2	반지하	유		기반성토	유	무	

[표 3] 시기별 봉토분 축조형태

시기	유구	축조 형태		입지		정지		주체부 수직위치			기반 성토		제상 성토		호석 축조			대상 기법	
		능선	사면	삭토	치환 1	치환 2	지하	반지하	지상	무	유	무	유	봉분 완성	봉토	기반 성토	무	유	
5C 3/4	문산 II 지구 M2호		●		●		●	●		●		●		●			●		
	문산 I 지구 2호		●		●			●		●		●			●		●		
	문산 I 지구 3호	●			●			●		●		●		●			●		
	죽곡리 산40 4호	●				●			●		●		●			●	●		
	죽곡리 산40 2호	●	●					●		●	●	●			●		●		
5C 4/4	성산리 1호	●				●		●		●		●		●		●	●		
	불로동 93호	●		●				●		●		●		●		●		●	
	문산 I 지구 1호	●				●			●		●	●				●	●		
	죽곡리 봉토분 1호		●		●			●			●	●				●	●		
	죽곡리 봉토분 2호		●			●		●			●	●				●	●		
	죽곡리 산40 3호	●				●			●		●	●				●	●		
6C 1/4	구암동 58호		●						●		●	●				●	●		
	성하리 1호	●				●		●			●	●				●	●		

형태적 속성이 지역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층의 형태 중 삽토치환<sup>1</sup>은 달성 문산리고분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자료를 통한 검토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석관묘가 만들어지기 전 정지층이 두껍게 성토되고, 이가 다시 굴착되는 기법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축조집단만의 특징적 축조기술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봉토분이 완성된 이후 봉분의 가장자리가 재굴착되고 호석이 축조된 경우는 5세기 3/4분기 이른 시점에 달성 문산리고분군(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3호분, 달성 문산리고분군 II 지구 M2호분)에서만 확인되었다. 이 또한 지역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같은 단계인 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2호분은 봉토층 성토단계에 호석이 축조됨이 밝혀져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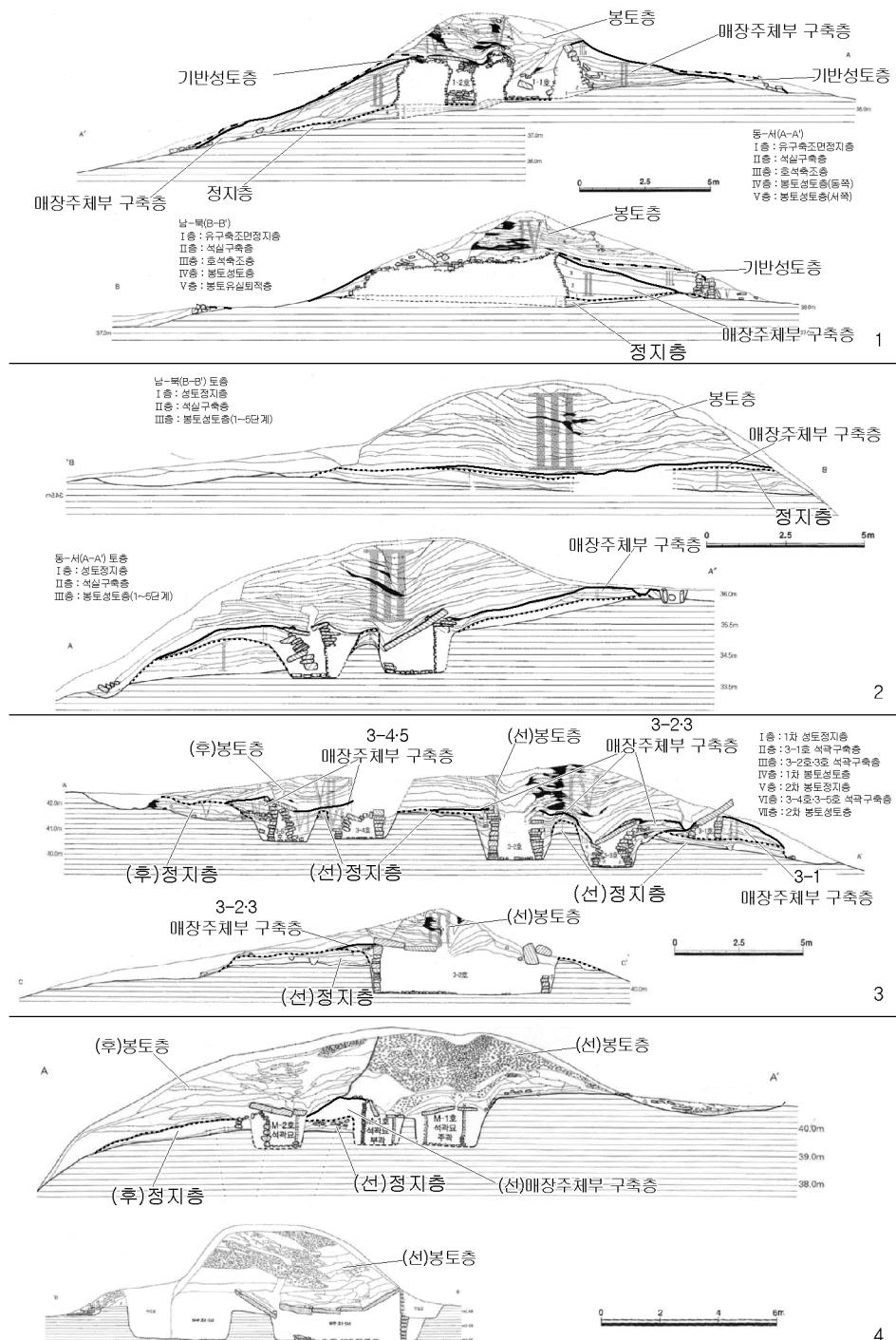
## 2.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 분석

### 1)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1호분은 성토된 정지층 위쪽에 지상식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를 정도로 성토되었다. 이후 기획된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고 이와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1).

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2호분은 성토된 정지층이 굴착되어 반지하식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성토정지층의 범위 가장자리까지 성토되거나 경사위쪽은 좁은 범위로 성토되었다. 복개와 밀봉 이후 정지층 가장자리가 깎여 봉분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호석과 함께 봉토층이 조성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2).

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3호분은 선축분(3-1·2·3곽)의 경사 위쪽에 후축분(3-4·5곽)이 연접되었다. 성토정지층에 지상식의 3-1곽이 축조된 후 반지하식의 주부곽인 3-2곽과 3곽이 축조되었고 주위로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성토되었다. 선축분 전방에 치우친 3-1곽의 구축층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르며, 반지하식인 3-2곽과 3곽이 축조되면서 성토된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정지층과 석곽의 높이에 맞춰 봉분 중앙부에 성토되었다. 복개와 밀봉 후에 봉토층이 성토되었고, 이를 다시 깎아낸 후 호석이 축조되었다. 후축분의 성토단위 구성은 선축분과 동일하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3).



[도면 8] 달성 문산리 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2호분은 선축분(2-1-주·부곽)의 경사 아래쪽에 후축분(2-2곽)이 조성되었다. 구지표의 삭토 이후 경사 아래만 성토되어 정지층이 조성되었다. 정지면에 묘광이 마련되어 선축분의 주곽과 부곽이 축조되었는데 주곽은 지하식에 가깝기 때문에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조성되지 않았고, 경사 아래쪽에 위치한 부곽은 주곽 묘광의 경사위쪽 어깨높이까지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조성되었다. 복개와 밀봉 후에 봉토층이 성토되었고 이를 다시 깎아낸 후 호석이 축조<sup>5)</sup>되었다. 선축분의 절개 이후 후축분이 조성되었는데 후축분의 묘광은 선축분의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봉토층을 어깨면으로 한다. 보고서 토층도에서는 선축분 호석 바깥의 성토층이 길게 뻗은 채 선축분의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축조공정과 선축분의 규모를 고려하면 선축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축분 절개과정에서 호석이 드러났고 수직상으로는 호석의 높이, 수평상으로는 후축분의 분역(墳域)에 맞춰 정지층이 성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축분의 매장주체부는 원지반을 기준으로 반지하식에 해당되나 묘광 어깨면을 기준으로하면 경사위쪽은 지하식에 해당되어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사 아래쪽 일부는 매장주체부 구축층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4).

## 2)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호는 분역이 결정 된 후 전체적으로 정지층이 성토되었다. 이후 반지하식 석곽이 축조되고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정지층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성토층이 조성<sup>6)</sup>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이후 성토층의 구분이 불확실하다. 벌굴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면 9-1]과 같이 나뉘는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 혹은 3유형에 해당된다.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2호는 구지표의 삭토와 보토로 정지층이 마련되었다. 지상식에 가까운 주곽이 조성될 때 매장주체부 구축층 가장자리에 내호석이 조성된

5) 벌굴자는 선축분의 봉분축조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에서 호석이 축조되어 묘역범위가 확정된 후 매장주체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벌굴보고서에서의 어떠한 도면과 사진에서도 호석과 매장주체부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후축분의 축조와 도굴로 인해 토층도의 층위 역시 끊긴 경우가 많았다. 다만 선축분 경사 아래쪽 호석은 후축분의 매장주체부로 인해 토층이 이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B-B' 토층에서는 'L'자형의 굴착후 호석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 고분군 내 달성 문산리 Ⅰ지구 3호분과 비슷한 축조공정을 고려하면 봉분 완성 후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호석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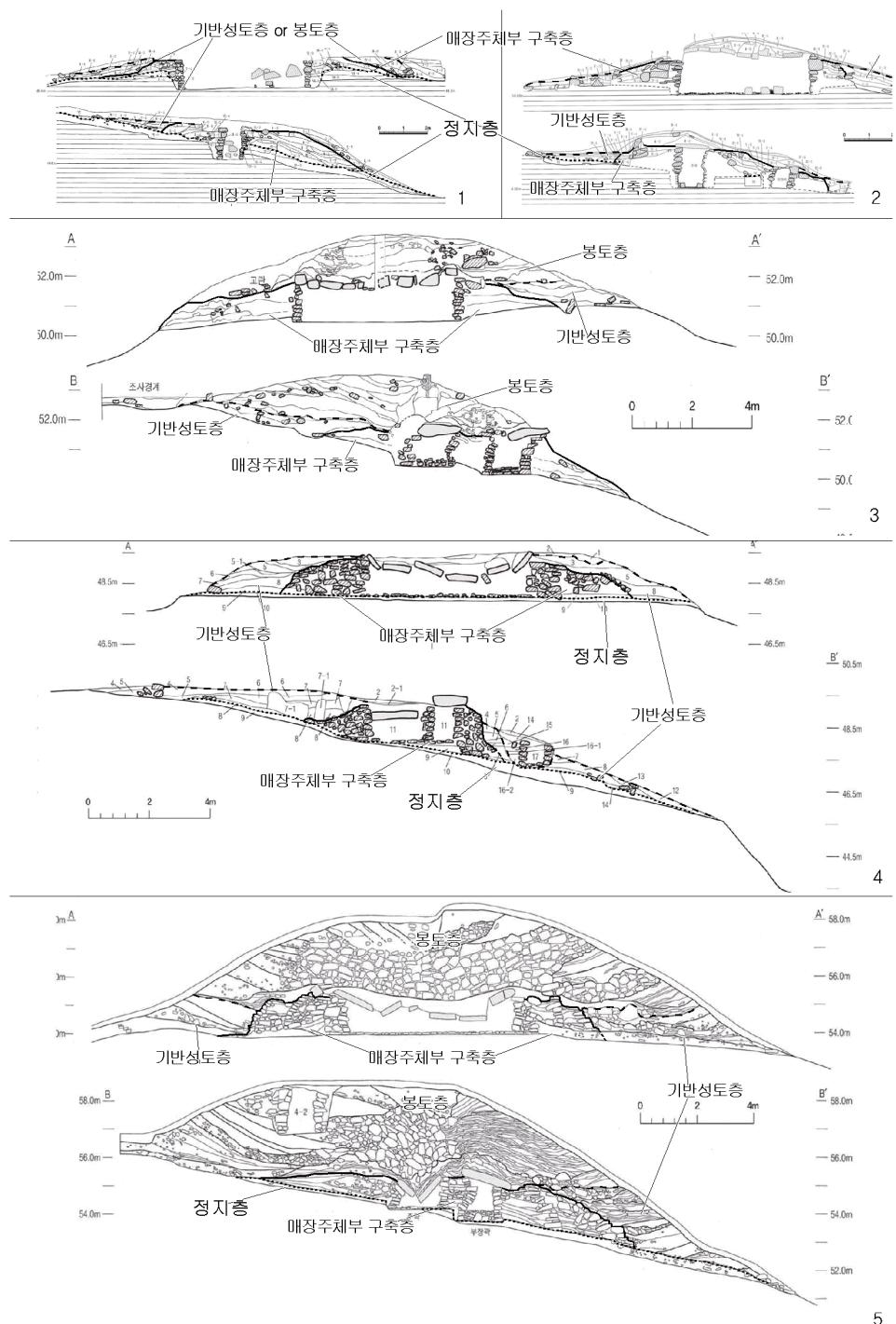
6) 밀봉 이후 호석이 축조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밀봉층과 호석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것이 특징이며, 이 내호석의 외면에 붙어 부곽이 조성되었다. 내호석을 기준으로 석곽의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존재한다. 봉분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면서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된 후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졌다. 봉토층은 유실된 상태이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2).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2호분의 정지층은 삭토된 원자반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지상식 석곽이 축조되면서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를 정도로 넓게 성토되었으나 경사 위쪽은 그 범위가 좁다. 경사 위쪽의 봉분 가장자리에 호석과 함께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고, 경사 아래쪽은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복개와 밀봉 이후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3).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3호분은 선축분(3-1 주·부장곽)의 경사 아래쪽에 후축분(3-2)이 축조되면서 봉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선축분의 정지층은 삭토 이후 점토가 얇게 성토되어 마련되었다. 지상식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는데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범위는 넓지 않고 봉분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발굴자는 정지층 바로 위층(도면 9-4 9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9층과 10층의 토질과 토색은 유사하며 호석에서 구획요소가 확인되었다. 정지층 바로 위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본다면 호석의 축조시점이 A-A' 토층과 B-B' 토층의 공정 순서가 서로 다르게 된다. 또한 A-A' 토층에서는 구획렬의 단면이 확인되는데 일정 경사를 보이며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이다. 이는 선축된 성토물의 경사를 따라 구획렬이 축조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황을 정리하면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적석부와 그 주변 일부로 한정되며 9층은 나뉘어야된다. 또한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상위층은 밀봉 이전의 성토층이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으로 보고 호석의 축조시점은 구획이 확인되는 기반성토층과 같이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축분을 기준으로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4호분은 선축분(4-1 주·부장곽)의 경사 위쪽에 후축분(4-2)이 축조되면서 봉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정지면에 묘광을 얇게 파고 지상식의 매장주체부가 구축되었는데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A-A' 토층의 북쪽에서는 정지토가 주곽의 하부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실측되었고, B-B' 토층에서는 정지를 한 후 묘광을 판 것으로 실측되어 그 선후관계에 모순이 있다. 즉 A-A' 토층의 정지층은 B-B' 토층의 정지층과 같은 공정의 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발굴보고서에서 A-A' 토층의 남쪽에서 정지층으로 실측된 토층은 반구상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는 묘광을 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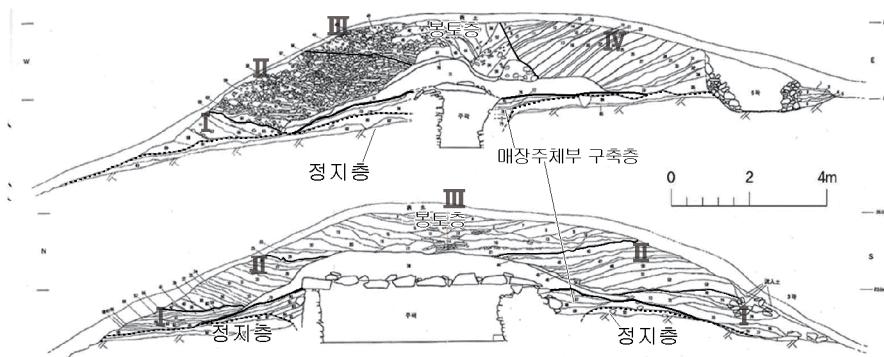


[도면 9] 달성 죽곡리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굴착하며 나온 반출토를 토제(土堤)와 같은 모습으로 쌓은 성토부의 단면일 가능성 이 크다. 또한 A-A' 토층의 북쪽 정지층은 정지층이 아니며 정지층이 있었더라도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아래에서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와 연계하여 밸굴보고서 내 A-A' 토층의 정지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보더라도 매장주체부의 이면(裏面)에서부터 북쪽가장자리까지 이어져 호석이 축조되는데 이것 역시 다른 면의 공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A' 토층의 북쪽 정지층은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 토층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지층이 얇게 굽착된 후 지상식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는데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다. 이후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지고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5).

### 3) 화원 성산리고분군의 성토단위

화원 성산리 1호분의 경우 밸굴보고서 내 첨부된 분구축조방법에 대한 연구(井上主稅 2003)와 이를 재검토한 연구(조영현 2011)가 있다. 화원 성산리 1호분의 분구축조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탄면의 형성지점을 근거로 성토층을 I에서 IV층까지 나누었는데(井上主稅 2003: 406~411), 이 논문의 기준에서 모두 봉토층에 해당된다. 이를 재검토한 연구에서는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아래쪽의 평탄화 없이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밀봉층과 가장자리 성토층의 순서에 의문을 표하였다. 그리고 성토IV층의 하사향성토는 단면을 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성토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성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IV층이 최후에 성토된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반론하며 구획성토 및 동시 성토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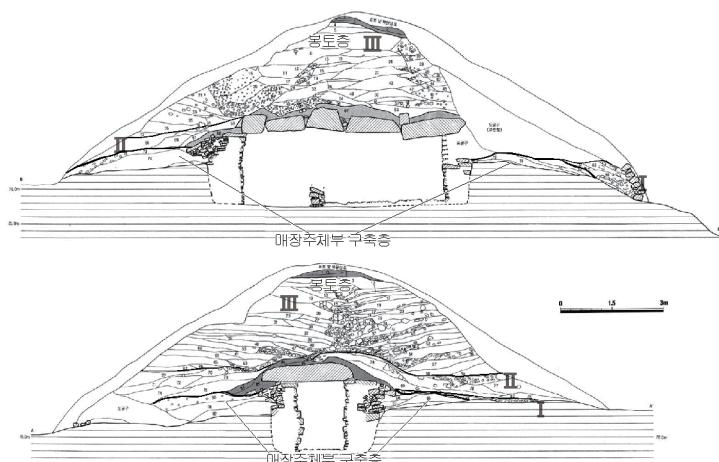


[도면 10] 화원 성산리 1호분 성토단위 구성

영현 2011: 379~392). 하지만 상사향이나 하사향으로 교호성토 되었을 때 작업방향과 수직으로 단면을 자르면 수평성토로 관찰될 것이며, 성토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고 그 방향은 선축된 성토단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원 성산리 1호분 역시 하사향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동-서 토층도의 서쪽 성토 I 단계에는 단면 삼각형의 제상성토가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조영현 2011: 379~380)의 지적대로 토제와 같은 모습의 기반성토층을 먼저 만들어 경사 아래(서쪽)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 후 밀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봉분의 가장자리에 토제와 같은 모습의 성토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동-서 토층도의 서쪽 성토 I 층을 기반성토층으로 볼 수 있고 동쪽의 34층과 35층을 토제로 본다면 성토 IV 층의 33층을 토제와 밀봉사 이를 채운 흙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 둑 역시 밀봉층과의 선후관계가 불명확한 봉분 가장자리의 토층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상태이다. 다만 화원 성산리고분군 내 다른 봉토분의 조사 사례가 없고 가장자리가 토제상이라 해도 중간을 채운 층이 밀봉층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굴자의 의견에 따라 기반성토층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2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0).

#### 4) 대구 불로동고분군의 성토단위

대구 불로동 93호분의 정지층은 구지표가 삽토되어 마련되었다. 이후 반지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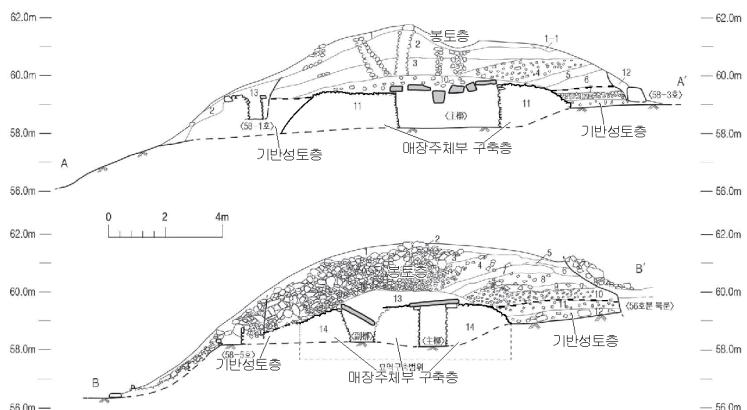


[도면 11] 대구 불로동 93호분 성토단위 구성

석곽이 축조되었으며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곳에 따라 봉분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넓게 성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매장주체부의 구축 이후 3단계의 성토를 거치는데 이 논문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봉토층에 해당된다. B-B' 토층에서 성토 I 단계가 얇게 확인되고, A-A' 토층의 경사 아래와 B-B' 토층의 우측에서는 도굴로 인해 토층이 교란되어 상부토층과 연결되지 않는다. B-B' 토층의 좌측에서는 성토 I 단계가 없어 밀봉층과의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호석을 기준으로 B-B' 토층 좌측 호석의 틸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매장주체부 구축층(발굴보고서 73층)이 호석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A-A' 토층의 경사 아래, 도굴구 아래 호석과 연결된 토층이 매장주체부 구축층(발굴보고서 90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A' 토층의 경사 위쪽 성토 I 단계는 밀봉층에 후행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2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1).

## 5)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성토단위

대구 구암동 58호분의 경우 정확한 정지 양상은 알 수 없다. 발굴자는 매장주체부의 벽체 배후 공간에서 묘곽을 보강한 구조물인 묘역구축부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이가 매장주체부 구축층에 해당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매장주체부 축조 이후 하층성토<sup>7)</sup>부와 상층성토부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는데 하층성토부는 이 논문에서의 기



[도면 12] 대구 구암동 58호분 성토단위 구성

7) 구암동고분군의 경우 축성재가 석재 위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봉토분이 아닌 봉석분 혹은 적석분이 되고 성토라는 단어 자체에 어폐가 있다. 다만 신라 지방 고총의 체계 하의 결과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성토, 성토층, 봉토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반성토층에 해당되며 상층성토부는 이 논문에서의 봉토층에 해당된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2).

한편 대구 구암동 56호분은 매장주체부와 봉분가장자리와의 석재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토층도에서 관찰되는데 이가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토층의 경계로 판단된다. 대구 구암동 56호분의 매장주체부와 호석을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본 기준의 발굴보고서와 관련 연구(김강남 2012)도 있지만 재발굴된 발굴보고서(대동문화재연구원 2021)에서도 이를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대구 구암동 5호분의 경우 약 보고(대동문화재연구원 2022a)된 내용에 따르면 경사면이 정지된 후 마련된 묘역에 호석과 함께 매장주체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대구 구암동 5호분의 경우 봉분의 조사가 석곽의 어깨면 높이까지만 진행된 상태, 즉 밀봉층 상위의 봉토층까지만 조사된 상태로 호석과 매장주체부 축조의 선후관계 및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범위 역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구 구암동 5호분의 조사에서는 구획석렬이 14개소 확인되었는데 호석의 면석에서도 열이 틀어지거나 줄눈의 수가 관찰되는 등 구획석렬과 이어지는 구획요소가 관찰된다(사진 1).



[사진 1] 대구 구암동 5호분 조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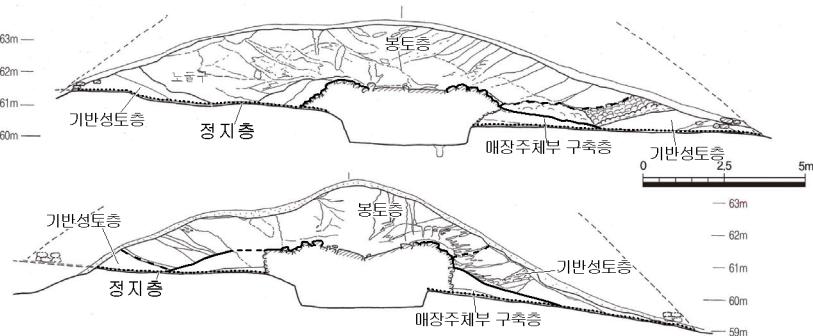
앞선 연구(김강남 2012)에서 호석이 매장주체부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는 C-4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대구 구암동 56호분과 횡혈식 석실분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를 호석의 기능변화로 보고 대구 구암동 56호분은 이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낙동강 이동지역 봉토분에서 확인된 호석의 축조시점은 봉분이 완성되고 봉분 가장자리가 깎인 후 축조된 경우와 봉토층의 조성시 축조된 경우 그리고 기반성토층의 조성시 축조된 경우로만 나뉘었다. 달성 죽곡리고 분군 봉토분 2호의 경우 석곽과 함께 호석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내호석이자 내구의 구획으로 볼 수 있으며 봉분 가장자리 호석과는 다른 경우이다.

여기에 더해 방사상구획성토는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효율에 기초한 구획으로 나뉘며, 수직공정의 단위가 달라질 때 방사상구획이 새롭게 이루어져 구획렬이 합쳐지거나 틀어질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

상구획은 기반성토층과 봉토층에서만 확인되고 있다(박현정 2017: 86~91, 2023b: 850). 대구 구암동 5호분의 호석에서 구획요소가 관찰된다는 점은 호석의 뒤쪽으로 연결되는 성토층이 구획성토되었음을 뜻하며, 호석과 이어지는 성토층을 기반성토 층 혹은 봉토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발굴조사가 밀봉층 제거 이후 석곽 내부조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구 구암동 5호분의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 6) 달성 성하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성하리 1호분의 경우 구지표가 삑토되고 점토가 이용되어 정지층이 성토되었다. 그리고 반지하식의 횡구식석곽이 축조되었으며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형성한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기반성토층이 동시에 성토되었다. 이후 석곽의 천장이 설치되고 입구부를 제외한 상부가 밀봉되었으며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3).



[도면 13] 달성 성하리 1호분 성토단위 구성

# IV. 축조기법의 유형과 함의

## 1. 축조형태의 다양성과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 축조형태의 조합<sup>8)</sup>을 통한 유형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경

8) 한편 이 논문은 한정적 검토사례 및 고분군 내 대표성의 문제와 아울러 봉토분의 규모에 따른 축조기법의 조합양상이 언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다만 봉토분의 규모는 검토된 봉토분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2호를

우의 수로 나타나고 검토한 13기의 봉토분 중 같은 형태로 축조된 경우도 없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축조형태 자체는 전후 공정에 따라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의문이 들며, 실제 각각의 축조형태는 전·후 공정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 내에서 서로 사이에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선행 공정의 형태가 후행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정지공정으로 삭토치환1로 정지를 할 경우 이미 봉분 가장자리를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의 조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sup>9)</sup> 또한 삭토치환1의 경우 제상성토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성토정지를 통해 평坦면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 성토부는 선축된 성토물을 따라 대개 수평성토 되는데 내구가 형성된 경우 내구를 따라 상사향의 성토가 이루어지거나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가 적용된 경우 하사향의 성토가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이는 봉토분에서 성토의 방향성은 선축된 성토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성토의 용이성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봉분 가장자리의 제상성토는 특정 성토기술이라기보다는 성토의 용이성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축조공정 상의 기술과 그에 따라 정해진 형태를 통한 유형의 분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봉토분 혹은 고총보다 규모가 큰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 봉토분의 축조는 당대 토목기술 중 일부를 상황에 맞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부적인 유형 분류 및 시·공간적 변화상을 파악하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가능성 있다.

삭토치환1로 분류된 성토정지가 달성 문산리고분에서만 확인되는 것처럼 축조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지역성은 봉토분 축조 초기에 선축된 타지역 봉토분의 외관만 보고 이를 모방하여 당시 집단 내에서 공유하던 토목기술을 이용한 까닭으로 볼 수 있으며 봉토분 축조에 있어 축조기술의 적용에 대한 정형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제외한 나머지 봉토분이 흔히 지방 고총이라 할 수 있는 봉토분으로 그 규모가 대동소이한 상태이다. 또한 고분군마다 그 밸culus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분군 내 각 봉토분의 비교에 있어 봉분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9) 화원 성산리 1호분과 대구 불로동 93호분은 성토정지(삭토치환1)가 없는 상태이며 가장자리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원 성산리 1호분에 대해서는 멀봉 이전의 성토층, 즉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반성토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조영현 2011: 379~380)도 있다.

## 2.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과 전개

앞에서 봉토분의 성토단위 구성에 따른 유형을 3개로 나누고 검토대상 봉토분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를 [도면 2]의 편년에 맞춰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검토된 사례가 한정적이고 해당 고분군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봉토분인가 하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으로 보았을 때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1유형이 주를 이루고, 화원 성산리고분군과 대구 불로동고분군에서는 2유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달성 죽곡리고분군과 대구 구암동고분군에서 3유형이 주를 이루며 달성 성하리고분군에서도 3유형이 확인되었다.

한편 대구지역의 고분군 중 봉토분의 조사 사례는 특히 서북부의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에 집중된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I 지구 4호분과 달성 문산리고분군 II 지구 M1호분을 포함한 중·대형 봉토분 전량이 조사된 상태이다. 달성 죽곡리고분군 역시 이 논문에서 다루는 5기를 포함해 총 7기의 봉토분이 조사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김용성 2011; 윤천수 2008; 정창희 2004)에서는 달성 문산리 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을 묶어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여기에 화원 성산리고분군을 같은 토기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경우가 많다. 그 출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본 달성 문산리고분군 축조집단과 달성 죽곡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성장을 신라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석하고, 고종이 일찍 소멸된 이유를 신라의 낙동강 진출 완료와 지방지배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이에 조사 사례가 많은 대구 서북부지역의 봉토

[표 4] 낙동강 중류역 봉토분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 변화

고분군	달성 문산리 고분군			달성 죽곡리 고분군			화원 성산리 고분군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구암동 고분군			달성 성하리 고분군		
유형 시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5C 3/4	●																	
	●																	
	●															○		
						●										○		
5C 4/4			●	△		△		●			●					●		
6C 1/4																		●

분 성토를 우선 비교한 후 대구지역 내 다른 세력의 봉토분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머리말에서 제시한 편년과 비교하면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이 1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되며,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경우는 3유형이 유지된다. 대구 서북부의 조사된 봉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봉토분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1호분인데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봉토분은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봉토분은 대다수가 아직 미발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조영집단이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조영집단보다 먼저 고종급의 봉토분을 축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가장 늦은 단계에 접어들어 3유형(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1호분)의 봉토분이 조성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하나의 세력권으로 상정되었는데 반해,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에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성(2011: 177~184)의 연구에서는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부곽에 1인 씩 도합 2인 정도가 순장되는데 반해, 달성 죽곡리고분군에서는 그 이상의 순장양상이 관찰되고 금동제합이 출토되는 등의 정황으로 달성 죽곡리고분군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 연구 이후 조사된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3호분의 선축분 주곽에는 양단벽부에 이식이 출토되어 2인 이상의 순장가능성이 암시된다. 또한 경식이 주곽 북동장벽의 중앙 아래에서 출토되었는데 곽 내 공간과 대구 서북부 고분군의 피장자 두향이 고려되면 경식의 주인 역시 피장자의 발치 우측편 순장자일 가능성이 있다. 즉 봉토분의 규모와 순장자의 수에서 고종 축조기 후반으로 갈수록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축조집단보다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상위에 위치한다.

성토단위의 구성, 즉 성토공정의 차이 자체가 선진기술의 수용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대구 서북부 고분군 축조집단이 신라에 의해 의도적으로 키워진 성장 세력이라면 봉토분의 성토공정 역시 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3. 경주 적석목곽분과의 비교 및 성토단위 구성의 함의

신라 지방에서 수혈식 석곽을 주체부로 둔 고종의 출현을 적석목곽묘와 연관(김용성 2014)시키듯 신라 지방의 고종 자체는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

는데 마립간기 고총이라는 개념 아래 지상적석식의 적석목곽분 중 토총도가 비교적 상세한 천마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천마총의 경우 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석과 하부봉토가 동시에 축조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빨굴자는 적석과 봉토의 접착면에 점토가 없고 적석의 외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동시에 쌓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후의 연구(최병현 2016: 66)에서 다시 언급한 바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에 동조하는 연구(조영현 2002b: 103)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수직상으로는 동일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수평상으로는 선후가 있는 것으로 봐야만 한다. 천마총은 성토재가 내사향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러한 분체물의 방향성은 선축된 구조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서 제상성 토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또한 서쪽의 적석부에 기대어 올라가는 석렬은 구획렬의 단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석부가 먼저 축조되고 호석과 봉분의 하단이 축조되었음을 뜻한다(도면 14). 다만 적석목곽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목곽 측면에서 적석이 일정 높이까지 진행된 뒤 호석과 하반부의 봉토를 쌓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합리적인 축조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를 내구와 외구의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목곽의 측면부적석을 내구로 볼 수 있는데 적석부 자체가 목곽을 지탱하고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한 내부구조로서 존재한다는 연구(심현철 2013: 113) 및 목곽부와 적석부를 구분해왔는데 이를 하나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김대환 2016: 105)와 같은 시각에서 측면부적석을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부적석과 밀봉 이전 하관을 위해서라도 봉분가장자리를 호석과 함께 높여 야만 하는데 이를 외구이자 기반성토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적석목곽분의 구조와 축조공정을 분류한 연구(심현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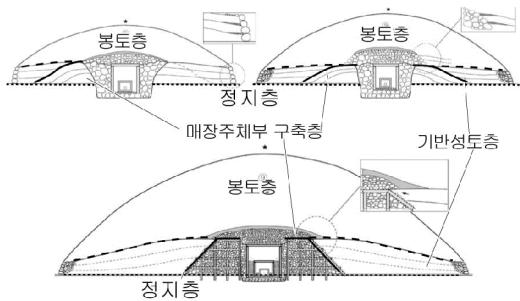
[도면 14] 천마총의 성토단위 구성

91~108)를 이 논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상기된 연구에서 적석목곽분의 유형이 A~D류로 나뉘는데 그 중 B, C, D류를 상위계층의 적석목곽분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 지방 고총의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C, D류이다. B~D류 적석목곽분의 성토층은 호석이 포함된 1차 봉토층과 밀봉 다음 단계의 2차 봉토층으로 나뉘었는데 세분되지 않은 1차 봉토층을 본 논문의 기준에 맞추면 B류 일부와 C류의 경우 매장주체부의 축조 선후에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봉분 중앙에서 목곽 축조를 위해 성토된 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볼 수 있고 봉분 가장자리에서 목곽 어깨면까지 성토된 층을 기반 성토층으로 볼 수 있다. D류는 지상적석식 목곽분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적석목곽분의 성토단위를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의 3유형과 유사하다(도면 15).

다시 대구 서북부지역으로 돌아와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 중 봉토분의 규모와 순장자의 수에서 우위를 보이는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축조집단보다 신라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봉토분의 축조기법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1유형은 재지적 성토공정,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3유형은 신라 중심세력의 영향을 받은 성토공정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장주체부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는데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경우 서로 묘형의 차이는 없지만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잘 짜인 축석의 석곽이 사용된 것에 반해,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1·3·4호분의 매장주체부에는 목가구 시설이 사용되었다. 석재의 종류와 크기 및 목개 여부 등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가까이로 성주와 창녕의 사례가 있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여 조심스럽지만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목가구시설 자체도 경주 목곽묘와의 연관성을 상정해 볼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검토 사례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을 제외하고 3유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성 성하리 1호분과 대구 구암동 5·56·58호분이 있다. 달성 성하리 1호분은 6세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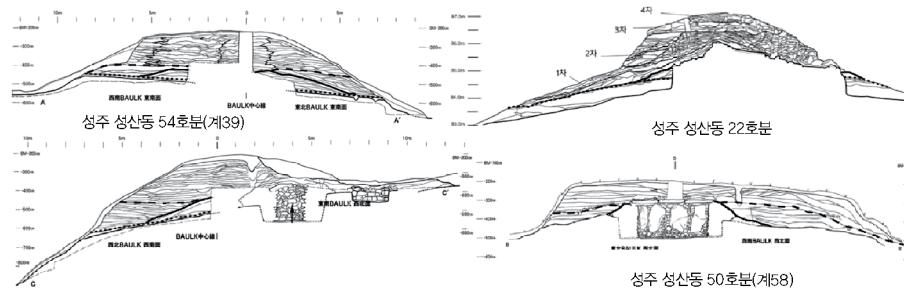
[도면 15] 적석목곽분 성토단위 구성(심현철 2013 일부 수정)

분기로 고총의 종말기에 해당된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경우 5호분이 5세기 (중) 후반으로 보고되었고, 56호분이 5세기 후엽~말엽으로 보고되었으며, 58호분은 56호분 보다 조금 더 느린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초엽에 축조되었다. 대구와 창녕지역에서 석축상 구획석렬이 확인된 고분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봉분 축조에 적석이 사용되며, 내부구조는 이혈묘광 11자형 주부곽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를 낙동강 유역에서 주로 채용되는 재지적 묘형과 신라적 요소의 분형이 결합된 것으로 본 연구(홍대우 2022: 30)가 있다. 봉토분마다 나타나는 성토재의 차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적석분을 입지에 의한 환경차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경주의 적석분을 모방하며 일찍부터 그러한 성토공정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봉토분의 조사예가 적어 조심스럽지만 화원 성산리 1호분과 대구 불로동 93호분의 2유형 역시 봉분가장자리를 높이지 않고 복개 및 밀봉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지적 성토공정의 한 갈래로 판단된다.

신라 지방 봉토분의 연원이 경주의 적석목곽분이라면 신라 지방 봉토분 중 1유형과 2유형은 적석목곽분의 외관을 보고 따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3유형은 적석목곽분의 축조 공정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첨언하여 낙동강 중류 이서지역이며 대구 서북부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경우,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성주 성산동 54호분(계명대학교 39호분)이 3유형으로 판단되고, 이보다 조금 늦은 성산동 22호분과 50호분(계명대학교 58호분)이 각각 2유형과 3유형으로 판단된다(도면 16). 그리고 성주 성산동 50호분과 54호분은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중심군인 승왜리지군에 속하고, 성주 성산동 22호분은 승왜리지군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다른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 16] 성주 성산동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대구의 내당동·비산동고분군과 동일계통의 묘제를 사용하고 신라토기의 범주에 속하지만, 한편으로 독자적 양식으로 설정되는 토기를 사용한 성주의 경우 5세기 이전 신라화된 지역으로 보는 연구(김세기 2014; 남익희 2009)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물로 정치적 복속 문제까지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후대의 문헌이지만 성주가 성산가야나 벽진가야로 불린 사실 자체를 간파할 수 없는데 당시 성주의 정치체에는 신라로의 통합성과 벽진국의 자율성이 공존하였다고 보는 연구(김재홍 2022)도 있다. 5세기 말 성주 성산동고분군에서 존재하는 성토공정의 차이 역시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와 연관지을 수 있으며, 동일세력 내 중심세력과 하위세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상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성토공정의 유형은 결국 매장주체부의 지상화와 연관된다. 앞서 지하식과 반지하식 그리고 지상식으로 살펴봤는데 매장주체부 어깨면과 묘광 어깨면을 기준으로 한 비교차로 보면 1유형이 0.5m 이하, 2유형이 0.6~0.7m, 3유형이 1m 이상<sup>10)</sup>으로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지상화 자체를 선진기술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경주 적석목과묘의 지상화와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V. 맷음말

이상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축조기법을 봉토분 축조형태의 조합과 성토 단위 구성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축조형태의 조합으로 축조기법을 분석한 결과 유형분류가 불가할 만큼 많은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각 공정마다 다르게 축조된 형태들은 이후의 공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축조공정은 묘의 조성 이후 봉분의 조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며 진행되나 각 공정의 여러 형태들은 앞선 형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를 가진다. 봉토분의 축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성토에는 분체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규격화되기 어렵다고 앞선 연구(박현정 2023b: 851)에서 밝힌 바 있다. 봉토분보다 더 거대한 성곽과 제언의 영조가 가능한 토목기술은 봉토분의 축조에도 도입되었음이 자명하다. 당시 봉토분의 축조에는 공정 내 다양한 축조기술이 담긴 문화적 응덩이에서

10)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이 불명확한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호는 매장주체부 어깨면의 높이를 알 수 없으며, 대구 구암동 58호분 역시 묘광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높이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상황에 맞춰 다양한 축조기술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단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낙동강 중류 동안지역에서 조사된 봉토분의 매장주체부는 그 수직적 위치가 대개 반지하식 이상인데 성토단위의 구성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봉분 가장자리까지의 성토 공정의 시점에 따른 것으로 1유형과 2유형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후 봉토층 성토단계에서 가장자리 성토가 이루어졌고 3유형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전 기반성토층이 성토됨으로써 가장자리 성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한 시공간적 변화양상이 어느 정도 간취되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1유형과 2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3유형의 경우 봉분 가장자리를 높임으로써 복개 및 밀봉공정의 편이성을 높인 경우라 볼 수 있지만, 1유형은 정지층으로 분 가장자리를 높였고, 2유형은 매장주체부가 조금 더 지면에 가깝게 축조되어 후속 공정의 편이성을 높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토기술의 발달이라기보다는 계통적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지역 내에서는 신라로부터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달성 죽곡리고분군과 적석목곽분처럼 성토재에 주로 석재가 이용된 대구 구암동고분군이 3유형으로 축조되었다. 고대 토목기술은 도제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전승되었을 것이며 그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는 단일 집단 내 변화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에서의 새로운 자극이 있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성토단위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3유형은 경주 적석목곽분의 성토공정과 유사점이 발견된다. 동일 고분군 내 다수의 봉토분이 조사된 예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검토된 유적의 사례를 고려할 때 1유형과 2유형이 재지적 성토공정이라면 3유형은 경주 적석목곽분의 축조원리에 입각한 성토공정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중앙으로 부터의 책임자 파견이 있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비록 성곽이나 제언 등과 함께 생각할 때 봉토분은 규모면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봉토분의 축조 역시 중앙에서 파견된 책임자의 입김이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분군 내 봉토분의 성토유형이 1유형과 2유형으로 확인되다가 고종 종말기에 3유형으로 바뀌는 모습은 어쩌면 신라의 중앙집권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박현정 2023a)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3,『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學術叢書29.
-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2022,「성주 성산동고분군 제48호분(대분) 학술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a,『達城 汶山里 古墳群 I 地區-大形封土墳1·2號』, 學術調查報告 第38冊.
- \_\_\_\_\_, 2004b,『達城 汶山里 古墳群 I 地區-大形封土墳3號』, 學術調查報告 第38冊.
- \_\_\_\_\_, 2004c,『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91·993號墳-』, 學術調查報告 第44冊.
- \_\_\_\_\_, 2008,『達城 竹谷里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116冊.
-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성주성산동고분군』,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13輯.
- 김강남, 2012,「5~6세기 신라 고분의 매장주체부 위치에 따른 봉토 구조와 변화-낙동강과 금호강의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야외고고학』15,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金大煥, 2016,「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木槨部와 積石部의 性格」,『考古學誌』22, 국립중앙박물관.
- 김세기, 2014,「고분자료로 본 삼국시대 성주지역의 정치적 성격」,『신라문화』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용성, 2011,「대구 서북부 고총과 그 축조집단의 성격」,『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4,「신라고총과 고총체계의 관점」,『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김재홍, 2022,「고대 성주와 성산동고분군의 역사적 의의」,『신라문화』6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남익희, 2009,「5~6세기 성주양식토기 및 정치체 연구」,『嶺南考古學』49, 嶺南考古學會.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5,『達城 城下里遺蹟 II』, 學術調查報告 第73冊.
- \_\_\_\_\_, 2018,『達城 竹谷里 山40遺蹟』, 學術調查報告 第96冊.
- \_\_\_\_\_, 2021,『달성 구암동 제56호분』, 學術調查報告 第113冊.
- \_\_\_\_\_, 2022a,『대구 구암동 고분군 제5호분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22b,『달성 구암동 제58호분』, 學術調查報告 第122冊.
- 대한토목학회, 1996,『토목 용어사전』.
- 동국문화재연구원, 2021,『성주 성산동 고분군 제22호분』, 학술조사보고 제43책.
- 류재극, 2012,「대리리 2호분의 축조과정 및 구조-기 조사된 봉토분과 비교하면서-」,『義城 大里里 二號墳 II』,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박미정, 2006,「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야외고고학』창간호,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09,「삼국시대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 시론-대구 불로동고분군을 중심으로-」,『東亞文化』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박현정, 2017,「달성 성하리 제1호분을 통해 본 구획성토의 제관점」,『야외고고학』30,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23a,「낙동강 중류유역 신라 봉토분 성토기법의 지역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3b,「봉토분 구획성토의 재검토-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조사사례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 신동조·박정욱, 2013,「부산 연산동 고총고분군의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 심현철, 2013,「新羅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공정」,『韓國考古學報』88, 韓國考古學會.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達城 汶山里古墳群 I』, 學術調查報告 第96冊.
- 尹千洙, 2008,「洛東江 中流 東岸의 古墳築造集團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井上主稅, 2003,「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분구축조방법의 검토」,『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경북대학교박물관.
- 鄭昌熙, 2004,「5~6世紀 大邱 洛東江沿岸 政治體의 構造와 動向」,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조성원, 2013, 「창녕 교동 7호분의 봉토 축조기법 검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 -區分盛土現像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13,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1, 「嶺南地方 後期古墳의 築造推移」,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第10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2a, 「韓日封土墳の築成方式に関する研究 一区画築造要素を中心について」, 福岡大学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2b,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구획축조에 대하여」, 『嶺南考古學』31, 嶺南考古學會.
- \_\_\_\_\_, 2011,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의 再檢討」, 『考古學誌』17 -虛空 韓炳三 館長 10週忌 追慕輯, 국립중앙박물관.
- 최경규, 2023, 「가야와 신라 고총의 토목기술적 특징과 상관성」, 『야외고고학』47,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최병현, 2016,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 『승실사학』37, 승실사학회.
- 韓玉珉, 2016, 「榮山江流域 古墳의 墳形과 築造過程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홍대우, 2022, 「대구 구암동고분의 구조와 특징」, 『야외고고학』43,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홍보식, 2013,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 \_\_\_\_\_, 2016, 「고분 구축기술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박물관.
- \_\_\_\_\_, 2018, 「고총 조사 방법-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31,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Types and Implications of Tumuli in the Eastern Middle Nakdong River Basin

Park, Hyun-Jung(Team Leader of Research, Dae-Dong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paper is written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spatiotemporal chang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yp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targeting the tumuli of six sites located in the middle Nakdong River basin, and understanding their significance.

The classification of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forms found in tumuli was deemed meaningless, indicating that diverse construction techniques were adaptively applied from a cultural pool containing various construction technologies at that time.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unit of techniques raising the mound level, the classification yielded three types for review. The results revealed patterns where the edges of the tumuli change from being formed after excavation and sealing to being formed before excavation and sealing. This shift was initially observed in tumuli associated with the early Silla period. However,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fortifications and other structures in Silla provinces, it's more reasonable to attribute the observed changes in earthen processes to systemic differences rather than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former represents localized earthen processes, while the latter is presum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earthen processes of Gyeongju's wooden chamber tumuli.

Since ancient civil engineering skills were transmitted through apprenticeships,

the pace of change would be slow, but the introduction of outside technologies would make a big differenc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ttribute the change in the type of construction unit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Pre-Silla tumuli show a similar earthen layer configuration to the wooden chamber tumuli with stone mounds from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while other tumuli show the composition of the earthen layer similar to that of the wooden chamber tumuli with stone mounds at the end of the Gochong (高塚, huge tumuli) period. This change in the construction process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centralization of Silla.

**Key words :** the Middle Nakdong-river Basin, Silla tumuli, typ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the unit of techniques raising the mound level